

SERI 경제 포커스

2006.1.9 (74)

일본의 소득양극화 현황과 시사점

목차

FOCUS	1
1. 일본의 소득격차 확대 현황	
2. 소득양극화의 배경 및 특징	
3. 시사점	
주간 금융지표	12
경제일지	13
경제통계	16

작성: 양준호 수석연구원
(junho@seri.org)
02-3780-8048
책임편집: 오승구 수석연구원
(ooskk@seri.org)
02-3780-8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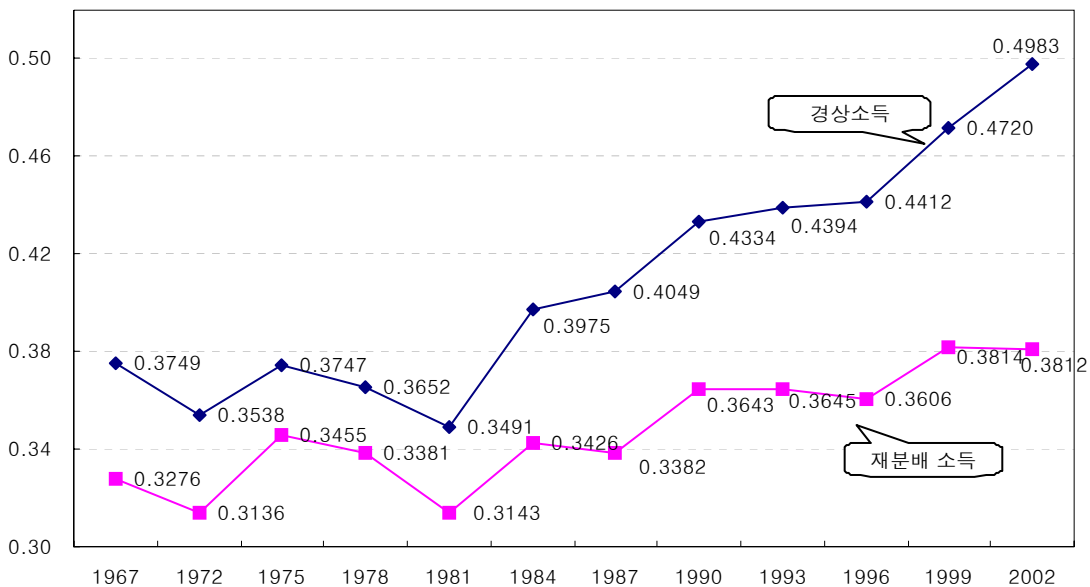
1. 일본의 소득격차 확대 현황

소득양극화가 급진전됨으로써 기존의 '一億 總中流' 개념이 해체

□ '98년 이후 일본의 소득양극화는 급속히 확대

- '90년대 이후 벌어지기 시작한 소득격차가 '98년부터 급격히 확대
 - 경상소득의 지니계수¹⁾가 '90년 0.433에서 '02년 0.498로 크게 상승
 - 지니계수가 0.5라고 하는 것은 국민 총소득의 3/4을 고소득층의 1/4이 차지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
- 기존의 '평등국가'적 소득분배에서 영미식 소득격차 양상으로 전환
 - 사회보장에 의한 소득재분배 후의 지니계수는 일본이 0.322('01년)로 미국 0.368('00년)과 영국 0.345('99년)에 근접해지고 있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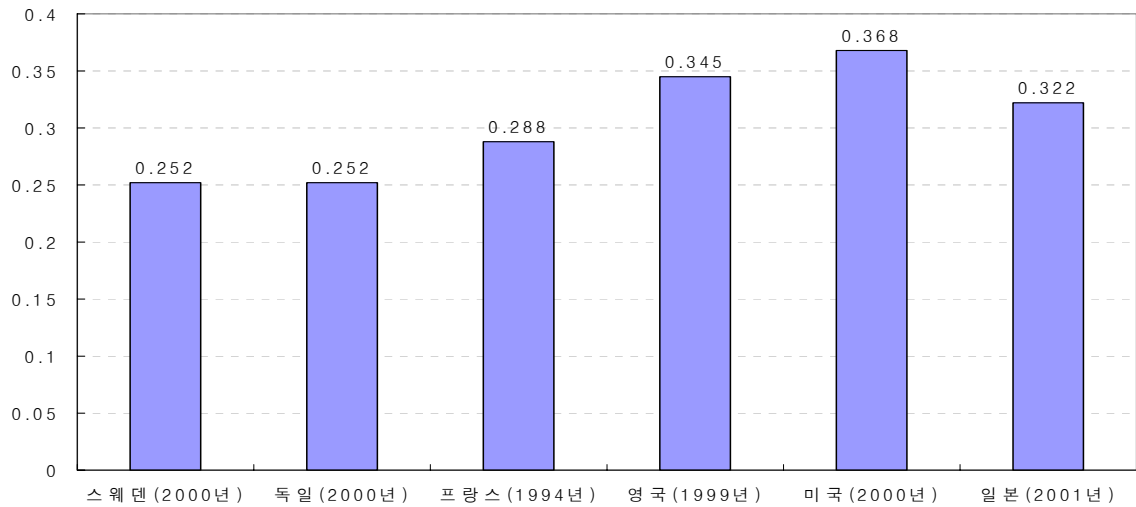
일본의 소득격차 추이(소득 지니계수의 추이)



자료: 厚生労働省 『平成14年度所得再分配調査』, 財務省 「税制調査會·基礎問題調査會」 資料

¹⁾ 지니계수(0~1)가 0에 가까우면 소득분배가 균등, 1에 가까우면 불균등함을 의미하며, 통상 0.4를 넘을 경우에는 상당히 불균등한 것으로 평가

소득재분배 후 소득격차의 국제비교



주: 일본은 등가재분배소득의 지니계수를 사용하였고, 그 외의 국가들은 등가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를 사용

자료: 三浦展 (2005) 『下流社會-新たな階層集團の出現』 光文社新書

□ 소득양극화로 인해 패전후의 일본사회를 지탱해오던 거대 중산층이 해체

- 소득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패전후의 일본을 지배하고 있던 '순국민이 중산층'이란 의미의 '1億 總中流' 의식이 최근 와해되는 추세
 -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한 일본인들의 비중이 '73년의 61.3%에서 '04년의 52.8%로 급격히 감소²⁾
 - 소득격차를 해소하지 않으면, 2010년에는 '上 15%, 중 45%, 下 40%'의 사회가 도래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될 정도
- 소득양극화는 사회전체의 중산층 비율을 축소시켜 다양한 계층을 조성³⁾
 - 저소득층에서는 '프리터(Freeter)族⁴⁾, 니트族(NEET :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⁵⁾ 로 불리는 신계층이 형성
 - 부유층에서는 기업 내 '경영 엘리트'로 불리는 고임금 노동자층이 형성

²⁾ 內閣府(2004) 「國民生活世論調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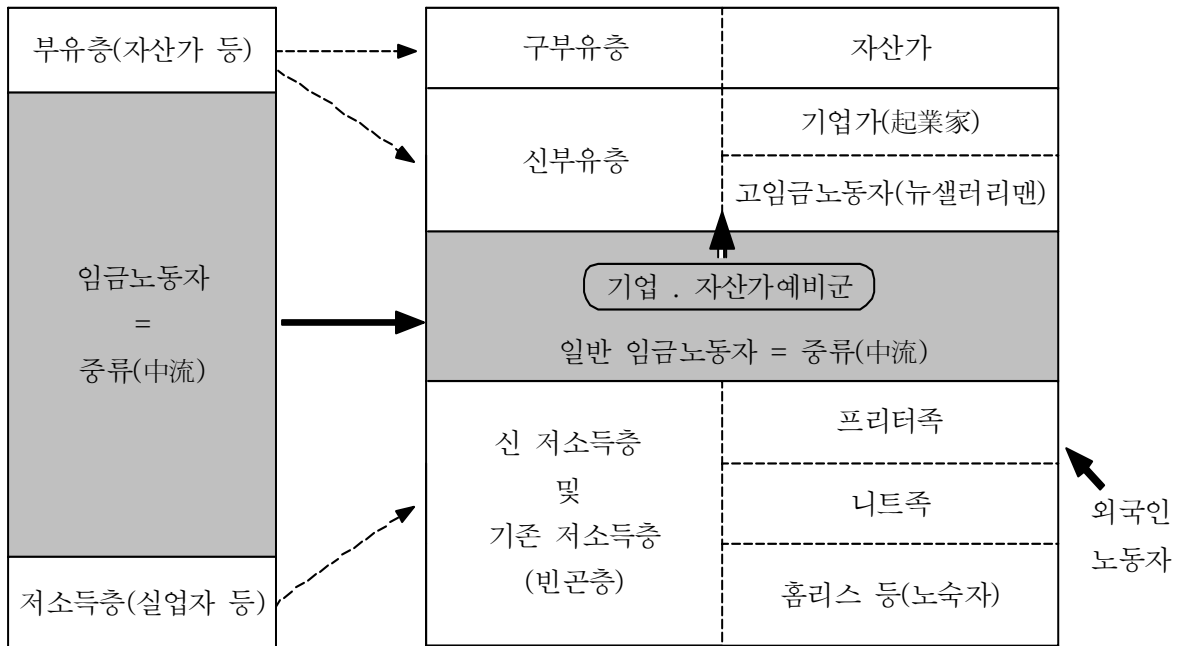
³⁾ 최근 일본의 지식인 사이에서는 '일본의 1955년 체제는 「중류화」 를, 2005년 체제는 「계층화」 를 지향하고 있다'는 지적이 성행

⁴⁾ '프리터'란 'Free'(영어)와 'Arbeit'(독어)의 합성어로 일하고 싶은 의욕은 가지고 있으나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생계를 영위하고 있는 고용형태를 지칭

⁵⁾ 진학 및 취직도 하지 않고 직업훈련도 받지 않으며 구직활동조차 포기한 젊은이들을 지칭

일본 내 새로운 계층사회의 형성

'1억 총중류'의 시대



자료: Nikkei Business (2005년 7월 18일자)에 입각하여 재구성

□ 현재 소득양극화에 따른 계층격차의 심화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일본 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

- 중류층이 해체됨으로써 심각한 빈곤문제가 전면적으로 대두
 - OECD가 최근 발표한 각국의 소득분배와 빈곤 현상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의 빈곤율⁶⁾은 '95년 8%에서 '05년 15.3%로 급상승⁷⁾
 - 최저생활비 수급자가 '95년의 60만 세대에서 '05년의 100만 세대로 급증
- '1億 總中流' 사회를 이끌어 왔던 기존의 일본적 발전양식이 한계에 봉착
 - '격차'에 의한 사회 불안정성이 증폭됨으로써 사회통합의 문제가 대두
- 사회 전체가 소득격차 심화 현상을 사회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로 인식
 - 현재 일본에서는 소득양극화로 인한 최근의 사회분열의 위기를 '또 다른 分斷國家의 탄생' 또는 '격차사회, 일본'이라고 표현할 정도⁸⁾

⁶⁾ '빈곤율'은 전세대 연간수입의 중간치(국민을 소득 순으로 정렬하였을 때 그 중간에 위치하는 소득액)의 절반 이하 수입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인구비율

⁷⁾ OECD국가 중 선진국 내에서는 일본이 3위. 참고로 미국과 덴마크의 빈곤율은 각각 17%, 4.3%

⁸⁾ Nikkei Business (2005년 7월 18일자). 또 일본의 소득격차 문제의 대표적 논자인 교토대 다치바나키 도시아키(橘木俊詔)교수는 '소득격차의 확대는 일본사회를 쪼먹는 암적 존재'로 규정

2. 소득양극화의 배경 및 특징

① 장기불황에 따른 高실업

□ 장기불황으로 인한 지속적인 실업률 증가가 빈곤층을 양산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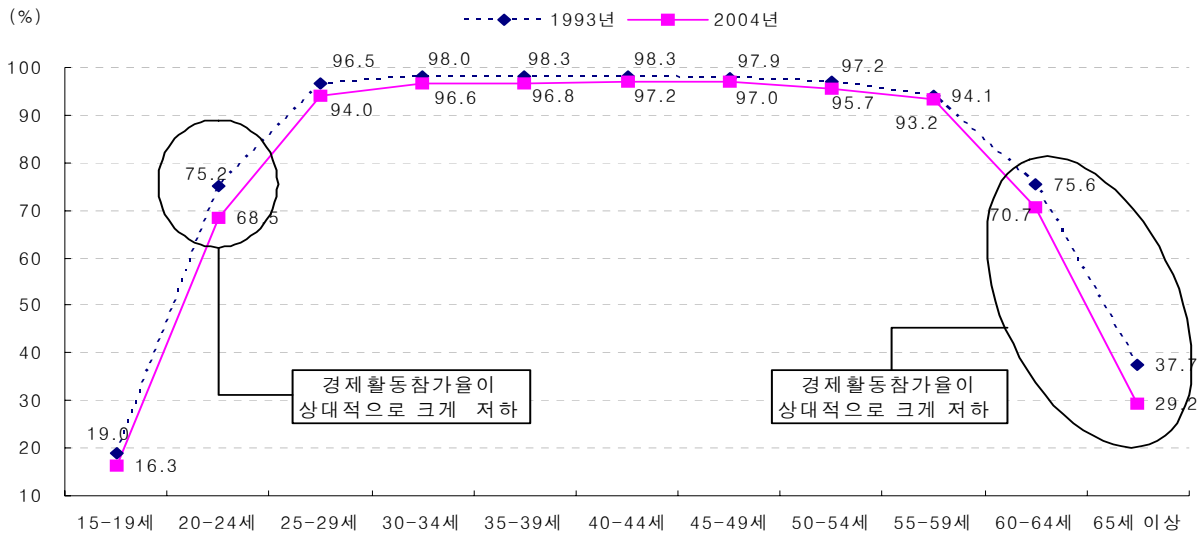
- '95년 이후부터 일본의 실업률은 상승하기 시작하여(3% 초과), '98년의 4%, '03년의 5%(최고 수준)까지 상승

· 구직 의욕을 상실한 실망실업자를 포함한 일본의 잠재실업률은 10%

- 장기불황을 겪으면서 청년층 및 노년층의 실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

· 특히 청년실업률(15~24세)은 기업이 신입사원 채용을 억제하기 시작한 '98년부터 급상승하여 '05년 현재 14%를 기록¹⁰⁾

일본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남성노동자) 현황



자료: 總務省統計局 「勞動力調査」

⁹⁾ 일본의 소득양극화를 초래한 가장 근본적 원인으로 장기불황을 거론하는 것은 국내외 일반적 통론. 특히 TIME(JULY 18, 2005)誌는 '일본은 자신을 하나의 거대한 중산층 사회라 생각해왔겠지만, 장기불황은 그들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두 계층으로 나누고 있다'고 언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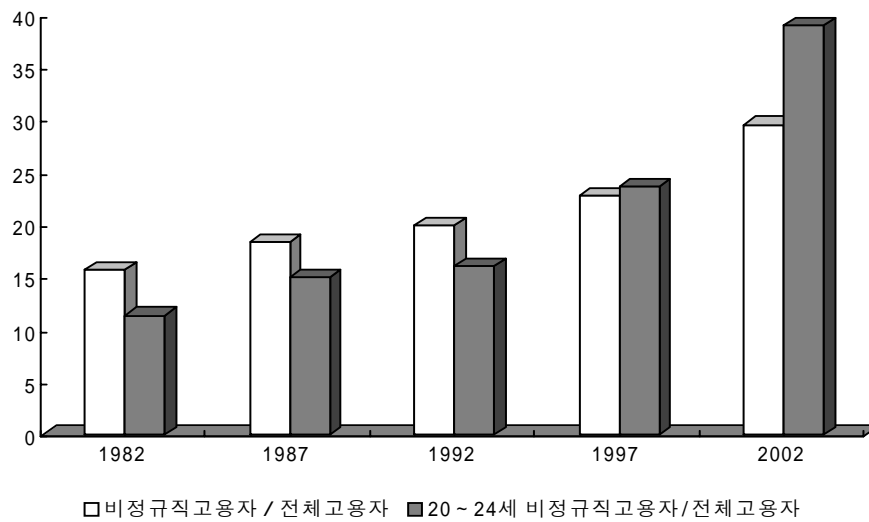
¹⁰⁾ 청년실업률이 높으면 숙련축적의 기회를 상실함과 동시에 실업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층이 양산되어 대량의 빈곤층이 재생산됨으로써 소득격차는 더욱 심화

② 임금격차 확대

□ 임금노동자 간 임금격차의 확대가 저소득층의 양산을 초래

- '잃어버린 10년'을 극복하기 위한 기업의 구조조정과 시장주의에 입각한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
- 전체 고용자 중 청년(20~24세)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급증

전체 노동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



자료: 總務省統計局 「就業構造基本調査」, 「勞動力調査(詳細集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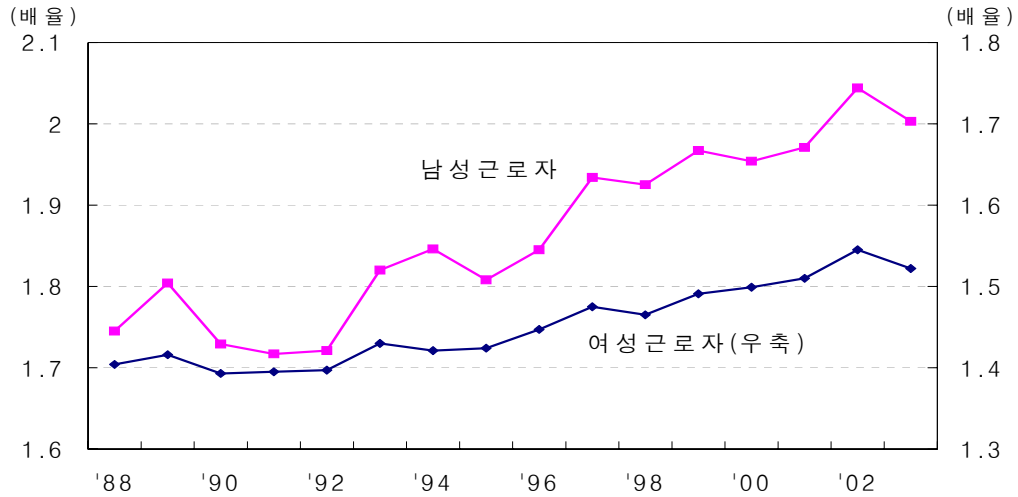
- 고용이 불안정한 청년층에서 프리터族 등 대량의 新저소득층이 양산
 - 15~34세 노동인구 중 '프리터族'의 비중이 '01년 21%에서 '04년 25%로 확대¹¹⁾
 - '프리터族'의 평균소득은 연간 100~200만엔(정규직의 1/4 수준)에 불과
- 저소득층이 재생산됨으로써 소득격차는 더욱 심화
 - 청년 저소득층은 자녀교육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격차가 대물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¹²⁾

¹¹⁾ '프리터族'은 최근 3년 연속 20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

¹²⁾ 20대의 저축 비보유 세대 비중은 '95년까지 15%를 초과하지 않았으나 '02년에는 33.1%까지 확대. 厚生勞動省은 '프리터族'이 정규직이 되지 못함으로써 소실되는 소득이 '04년 기준으로 12조엔으로 추정

-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의 임금격차는 점차 확대
 - 특히 남성 노동자의 임금격차가 더욱 현저
 - 기업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을 선호함으로써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간의 임금격차 확대가 고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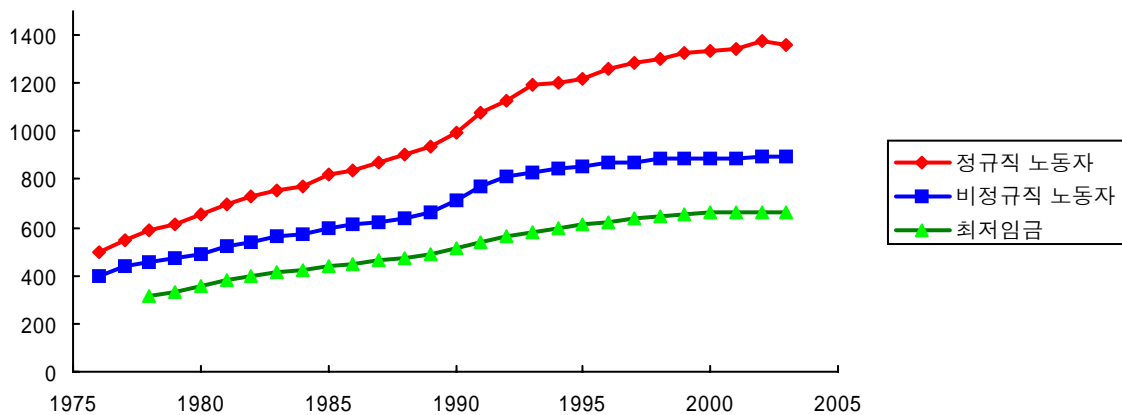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간 임금격차의 추이



주: 배율은 (정규직 시간급)/(비정규직 시간급)
 자료: 厚生労働省 「賃金構造基本統計調査」

- 최저임금과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간 격차는 커지고 있으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과의 격차는 거의 변화하지 않고 있는 추세
 - 기업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을 선호¹³⁾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과 최저임금과의 관계



자료: 厚生労働省 「賃金構造基本統計調査」, 「最低賃金要覽」

¹³⁾ 대체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가 줄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저하됨. 따라서 고용형태에 의한 임금격차 문제는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시켜 고찰할 필요

③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 신자유주의적 시장중심 경제정책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상대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소득격차를 확대
 - '98년 이후부터 본격화된 일본정부의 재정건전화 정책으로 사회보장비가 삭감되고 소비세율이 인상됨으로써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
 - 정부의 사회보장비 삭감¹⁴⁾은 저소득층의 실질임금 삭감을 초래
 - '97년에 소비세율을 3%에서 5%로 인상시킨 것도 저소득층에게 큰 타격
 - 경기부양을 위한 상속세 감면조치와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 등의 정부조치는 고소득자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
 - 소득계층별 소득세율의 추이를 보면, '86년에는 최고세율이 70%까지 달하였으나 현재('99년 이후)는 37%까지 하락
 - 이전의 소득세율은 15개 계급으로 세분하여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10%, 20%, 30%, 37%로 계급 수가 급감하여 소득세의 누진도 저하를 초래¹⁵⁾

저소득층 증가가 초래한 소비양극화

- 소득격차 확대는 소비양극화와 동시에 저소득층의 소비심리 위축 등을 초래
 - 현재 일본사회의 양극화 세태를 묘사하는 표현으로서, 최고급 명품과 초저가 제품의 판매가 동시에 증가한다는 '루이비통과 100엔 숭의 사회'라는 유행어가 있을 정도
 - 루이비통은 '04년 일본에서 1,500억 엔의 매출을 올렸고 대표적 매장인 도쿄 아오야마(青山)점 6층의 전용매장에서는 엄선된 회원에게만 루이비통의 희귀제품을 판매
 - 100엔 숭의 '다이소산업(大創産業)은 2,400여 점포에서 1일 매출이 약 8억 엔에 달하는 실정

¹⁴⁾ 예를 들어 국민의료비 지출의 국고부담비율은 '80년 30.4%에서 '99년 24.9%로 크게 하락

¹⁵⁾ 橋木俊詔(2004), 『家計からみる日本經濟』, 岩波書店

④ 고령화 급진전

□ 고령화 현상과 중·노년층 내 빈부격차의 확대도 소득격차 확대를 조장

-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인해 65세 이상의 노년층 내에서 빈부격차가 확대
 - 독거 생활을 하는 저소득층 노인 수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부를 축적한 노년층의 수도 증가했기 때문
 - 최근 OECD의 조사에 의하면, 66~75세의 노년층의 빈곤율은 19.5%, 76세 이상의 빈곤율이 23.8%로 전체 빈곤율을 크게 상회¹⁶⁾
 - 厚生労働省「賃金構造基本統計調査」에 의하면, '04년 현재 50代 후반의 10분위 분산계수¹⁷⁾는 0.5, 60代 후반은 0.9
- '98년 이후 50~60대 고임금 종업원 중심의 임금삭감과 명예퇴직을 통한 고용조정이 중·노년층 내 소득격차 확대를 초래¹⁸⁾
 - 35~49세 사이의 연령계층의 지니계수는 '97년에서 '02년 사이에 평균 4.2%p 증가했음에 반해, 50세 이상은 6.1%p 증가¹⁹⁾
-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전체 인구 중 노년층의 비중이 커짐으로써 노년층의 소득격차의 크기가 전체의 소득격차를 확대시키는 계기
 -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중이 '95년 11.2%에서 '05년 20%로 상승

¹⁶⁾ 18~25세 청년층의 빈곤율은 16.6%

¹⁷⁾ '10분위 분산계수'란 고소득 노동자와 저소득 노동자 사이의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하는 지표로, 지니계수와 같이 계수(0~1)가 0에 가까우면 소득분배가 균등, 1에 가까우면 불균등함을 의미

¹⁸⁾ 대조적으로 '97년 이전까지는 중·노년층 노동자의 소득격차가 대체로 종사하고 있는 기업의 규모 격차에 따라 좌우

¹⁹⁾ 厚生労働省「賃金構造基本統計調査」, 總務省統計局「就業構造基本調査」. 특히 50세 이상의 연령계층 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지니계수는 '97년에서 '02년 사이에 11%나 증가(참고로 35~49세 사이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지니계수는 9% 증가)

3. 시사점

시장원리적 개혁에는 소득양극화가 동반됨을 재인식해야 할 필요

- '시장'을 중시하는 개혁은 중요하나, 사회통합의 측면을 고려한 중층적인 개혁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게 숙고해야 할 필요
 - 세계에서 가장 중산층이 탄탄하기로 정평이 나 있던 일본에서 조차 소득 격차가 심화되어 사회적 불안정성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
 - 일본은 '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단행되고 있는 시장원리주의적 개혁에 의해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격차 사회'로 급격히 전환
 - 한국 역시 외환위기 이후 단행된 신자유주의적 개혁정책에 의해 소득양극화가 급진전
 - '95년에서 '03년 사이에 하위 10%의 소득은 평균 소득의 41%에서 34%로 줄었고, 상위 10%의 소득은 평균 소득의 199%에서 225%로 증가²⁰⁾
 - '시장'만을 중시하는 정책은 소득양극화를 초래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저해
 - '시장의 실패'를 보완할 수 있도록, 시장주의적 개혁과 각종 사회정책 간의 최적의 조합을 추구해야 할 필요
 -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져야 만이 경쟁과 효율을 촉진시킬 수 있는 건전하고 이상적인 시장경제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
-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ALMP)을 동시에 추진
 - 비정규직 노동자의 빈곤화가 소득양극화의 원인인 점을 감안하여 그들의 소득이 줄지 않도록 재취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
 - 스웨덴의 ALMP와 같은 정책을 고려해 볼 필요²¹⁾

²⁰⁾ 소득 5분위 배율도 '90~'97년의 4.48 수준에서 '04년에는 5.41로 크게 상승

²¹⁾ 스웨덴의 ALMP는 고용과 산업구조 고도화 사이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低생산성 산업부문의 축소에 의해 양산되는 잉여노동자들에게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高생산성 산업부문의 원활하게 취업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실시. 즉 시장주의에 입각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과 ALMP와의 조합이 스웨덴의 원활한 노동이동을 가능케 한 것임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보다 폭 넓은 논의의 장을 마련

□ 사회 양극화에 관한 논의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등의 고용 문제와의 관련성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할 필요

- 소득(빈부)격차의 심화 등의 사회양극화 문제와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차별화하지 말고 통합적으로 논의해야 할 필요
 - 한국에서는 '양극화 해소'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개별적으로 거론하는 경향이 일반적²²⁾
-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단순히 노동정책과 관련한 '각론'으로 보지 말고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핵심과제로서 인식해야 할 필요
 - 한국에서도 비정규직의 비중이 '01년 27.3%에서 '04년 37%로 급상승하였고,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60~65%의 수준에 불과하여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저소득층의 증대가 소득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²³⁾
 - 네덜란드는 고용위기에 따른 사회통합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임금을 억제하는 대신 고용을 최대한 증대시키는 사회적 합의에 성공²⁴⁾

□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가장 효과적

- 경제성장을 통한 고용창출이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야 소득분배의 개선이 가능
 - 기업들이 투자와 창업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

²²⁾ 한겨레신문 '06년 1월 2일 자의 설문조사 '06년 한국사회의 과제'

²³⁾ 일본은 비정규직 증가 및 정규직-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 확대에 따른 소득양극화의 심화(저소득층의 확대)가 사회양극화의 가장 근본적 원인으로 진단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 중

²⁴⁾ '82년 네덜란드 노사정이 합의한 바세나르 협약

약화된 중산층의 복원이야말로 시급한 과제

□ 소득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불안정성의 팽배는 극단적 이념의 등장을 조장하기 때문에 '사회 주춧돌'로서의 중산층의 재생은 시급한 과제

- '一億 總中流' 시대가 막을 내리고 '90년대 후반 이후 '격차 사회'로 접어든 일본은 최근 각종 사회문제 및 이데올로기 상실의 위기에 직면²⁵⁾
 - 사회 혼란과 이념적 공백은 국가정체성을 강조하고 애국심을 북돋우는 정치세력, 이른바 '일본판 네오콘(Neo-Conservative)'의 대두를 초래
- '사회적 균형자'로서의 중산층이 약화되면 빈곤층의 박탈감과 불만을 표로 이용하려는 정치적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 대두됨을 인식할 필요

□ 사회의 안정세력이자 정치의 균형추로 작용하는 중산층의 복원이 시급

- 중산층 약화는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반기업·反부유층 정서의 확산을 초래
 -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절대적 다수 세력이 필요
 - 중산층의 정치 경제적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그 위상을 제고시킬 필요
- 국민경제, 특히 내수를 튼튼히 받쳐 줄 수 있는 것은 중산층임을 명심하여 보다 중층적인 제도구상이 절실
 - 경기회복과 관련한 각종 경제정책은 중산층 복원을 위한 제반 사회정책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필요

<以上>

²⁵⁾ 일본 내 '격차사회'의 형성은 사회 전체적인 자신감의 상실, 자살률 급증, 경제정책에 대한 회의, 투표율 저하 등의 사회병리현상을 초래하여 이른바 '이데올로기의 빈곤' 위기에 직면

금리 :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 발행 우려로 소폭 상승

	12.30	1.2	1.3	1.4	1.5	1.6
회사채(AA-)	5.52	5.61	5.57	5.51	5.57	5.56
회사채(BBB-)	9.24	9.33	9.29	9.22	9.29	9.28
국고채	5.08	5.16	5.12	5.06	5.12	5.10
콜금리	3.72	3.71	3.72	3.72	3.70	3.79

자료 : 한국증권업협회, 한국자금중개

환율 : 달러화에 대해 원화, 엔화, 유로화 모두 강세

	12.30	1.2	1.3	1.4	1.5	1.6
원/달러	1011.6	1008.0	1005.4	998.5	987.3	988.10
엔/달러	117.87	117.89	116.25	116.19	116.08	114.42
달러/유로	1.1838	1.1821	1.2015	1.2108	1.2101	1.2146
원/엔	8.58	8.55	8.65	8.59	8.51	8.63

자료 : 한국은행, Datastream

주가 : 외국인과 개인 순매수 등에도 힘입어 사상 최고치 경신

구 분	12.29	1.2	1.3	1.4	1.5	1.6	
거 래 소	종합주가지수(p)	1379.37	1389.27	1394.87	1402.11	1395.51	1412.78
	거래량(만주)	44,593	38,390	53,460	52,000	53,807	57,724
	시가총액(조원)	655.1	659.7	662.3	665.8	662.5	676.1
	외국인순매수(억원)	394	169	-62	1,876	874	187
코스닥지수(p)	701.79	727.07	735.15	740.48	736.66	747.10	

자료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 12월 30일(금) 휴장

(1. 09 ~ 1. 13)

<p>1. 09. (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보도자료: 2006년 금융생활 길라잡이 책자 발간 (한국은행)
<p>1. 10. (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보도자료: 2005년 양곡년도 가구부문 1인당 쌀 소비량조사 결과 (통계청)
<p>1. 11. (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보도자료: 일본 11월중 경기동행지수 (내각부)
<p>1. 12. (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보도자료: 2005년 12월 고용동향 (통계청) 통화정책방향 (한국은행) · 해외 보도자료: 미국 11월 상품 및 서비스 수지 (상무부) 유럽 3/4분기 실질 GDP (유로통계청)
<p>1. 13. (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보도자료: 2005년 12월 및 연중 수출입물가 동향 (한국은행) · 해외 보도자료: 미국 12월 생산자물가 (노동부) 미국 11월 기업재고 (상무부) 미국 12월 소매판매액 (상무부) 일본 11월 중 민간기계수주 (내각부)

(1. 2 ~ 1. 6)

<p>1. 2. (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라질: Bovespa주가 3.08%상승, 34541 포인트로 마감 국민소득상승, 금리하락에 의한 경제성장 예측(3.5% → 4.0%)
<p>1. 3. (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뉴욕거래위원회 발표, 2005년 미 달러 최고성장 기록, 12.6%상승 유로화에 14.6%, 엔화에 15.2% 강세
<p>1. 4. (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연준, 2005년 4분기 미 국민소비 1991년 이후 변동없음. 미 상무부 발표, 05년 11월, 건설부문 소비 0.2%상승 (민간 0.2%, 정부 0.3% 상승)
<p>1. 5. (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멕시코: IPC주가 0.3%하락, 18608.34기록
<p>1. 6. (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부시행정부 발표, 고용시장 강세, 2005년 2백만개 고용창출

<p>1. 2. (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우편 서비스 경쟁체제로 전환 (로열 메일 외, 14개 우편업체 등록)
<p>1. 3. (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기아자동차, 2005년 독일자동차 시장에서 최고 판매 신장률(60%) 기록
<p>1. 4. (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러시아 가스프롬과 우크라이나 나프토가즈 천연가스 공급가격 합의 - 유럽행 가스관 통과비용 1.09달러→1.60달러, 47% 인상
<p>1. 5. (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 프랑스 텔레콤 SA, 6억만 유로 규모의 Telindus NV, 합병체의 철회 · EU: 유로12국, 금리인상으로 인플레이션율 (2.2%) 중앙은행 예상치 이하기록
<p>1. 6. (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유럽증시 에너지주 약세에 따른 영향으로 새해 들어 처음으로 하락세 기록 (독일 DAX30: 0.13%, 프랑스 CAC40: 0.07%, 영국 FTSE100: 0.41% 하락)

<p>1. 2. (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日가전업체, 마쓰시타가 유럽과 미국에서의 PDP TV 생산 능력을 전년비 2배로 늘리는 등,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한 평면 TV 생산을 확대
<p>1. 3. (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백화점의 새해 첫 판매 실적, 매출이 전년비 두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 · 신일본제철, JFE스틸, 스미토모금속, 고베제강 등 일본 철강업체 4사, 고급 강재의 증산을 위해 '09년까지 4년간 6천억엔을 투자
<p>1. 4. (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쓰비시도쿄UFJ은행, 영업을 개시 - 우려되었던 시스템은 순조롭게 가동 · 1/4분기 산업 기상도, 플랜트·조선, 리스, 백화점, 슈퍼마켓의 개선이 예상됨
<p>1. 5. (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닛코 시티그룹 증권, 도쿄증시에서 일본제지그룹 본사 주식의 매수주문을 실수 · '05년 등록차 판매대수, 국내 시장에서는 2년 연속 감소한 한편, 미국 시장에서의 일본차 점유율은 32.2%로 사상최고치를 기록
<p>1. 6. (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년간 광공업생산지수, 도카이(30%)와 홋카이도(2%)의 격차가 2.7배나 확대

<p>1. 2. (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레이시아: '05년 11월 전자부문 수출 전년동월대비 19.9% 증가 예상 (Bloomberg)
<p>1. 3. (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05년 베트남 주식시장 주가총액 25억 달러에 달함
<p>1. 4. (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국: 정부주도 대형 프로젝트, 수출, 민간투자 주도로 '06년 4.7% 경제성장 전망 (JP 모건)
<p>1. 5. (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05년 말 외환보유고 347,230억 달러 보유
<p>1. 6. (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강세로 2006-07회계년도 GDP는 7.7% 성장이 전망되나 인플레이션 압력이 금리의 급상승 초래 예상 (Bank of America)

◆ 거시지표 ◆

	경제 성장률	소비자 태도지수	물가		고용		금융동향					
			생산자	소비자	실업률	임금 (제조업, 실질)	통화(평잔기준)		회사채수익률 (평균)	어음부도율		주가지수
							M2	M3		전국	서울	
	전년동기대비(%)	포인트 (p)	전년동월대비(%)		기간 중 평균(%)	전년동월대비(%)	전년동기대비(%)		%	%	%	기말기준
2000	8.5	41.2	2.0	2.3	4.4	..	2.2	5.6	9.4	0.26	0.26	504.6
2001	3.8	43.7	-0.5	4.1	4.0	1.7	6.9	9.6	7.1	0.23	0.23	693.7
2002	7.0	47.3	-0.3	2.7	3.3	8.9	11.5	12.9	6.6	0.06	0.05	627.6
2003	3.1	44.6	2.2	3.6	3.6	5.0	7.9	8.8	5.4	0.08	0.06	810.7
2004	4.6	43.3	6.1	3.6	3.7	5.7	4.2	5.8	4.7	0.06	0.04	895.9
2004.12			5.3	3.0	3.8	18.0	4.9	6.3	3.7	0.05	0.03	895.9
2005. 1			4.1	3.1	4.2	-7.5	5.3	6.1	4.1	0.04	0.03	932.7
2	2.7	43.3	3.2	3.3	4.3	23.7	5.3	5.8	4.6	0.06	0.05	1,011.4
3			2.7	3.1	4.1	5.3	5.3	5.3	4.5	0.04	0.03	965.7
4			2.9	3.1	3.8	8.3	5.5	5.4	4.3	0.05	0.04	911.3
5	3.3	53.1	2.0	3.1	3.5	4.2	5.5	5.6	4.1	0.05	0.03	970.2
6			1.6	2.7	3.6	8.1	6.0	6.0	4.2	0.04	0.02	1,008.2
7			2.0	2.5	3.7	4.0	7.0	6.5	4.5	0.02	0.01	1,111.3
8	4.5	44.9	1.4	2.0	3.6	7.5	7.1	6.5	4.8	0.03	0.02	1,083.3
9			1.6	2.7	3.6	3.1	5.9	6.2	4.9	0.03	0.02	1,221.0
10			1.6	2.5	3.6	7.6	6.3	6.2	5.2	0.06	0.06	1,158.1
11	..	46.1	1.1	2.4	3.3	5.5	0.03	0.01	1,297.4
12			1.7	2.6	1,379.4

주 : 회사채수익률은 AA- 기준. 단 2000년 10월 이전은 A+ 기준,

◆ 산업활동 ◆

	경기종합지수		소매액 지수			국내기계수주	국내건설수주	평균 가동률	산업활동			
	선행지수	동행순환 변동치	총지수	백화점	할인점				제조업생산			
									전체	반도체	자동차	선박
	2000=100 (평균)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2000	100.0	104.0	11.0	12.7	39.9	11.7	15.1	78.6	16.8	36.2	13.9	-11.1
2001	98.6	100.7	7.0	5.4	26.8	-1.0	22.1	75.3	0.2	1.6	-1.1	25.5
2002	107.7	101.0	8.2	4.5	21.3	21.0	33.0	78.4	8.2	31.9	8.8	1.0
2003	108.6	99.1	-2.0	-6.1	8.6	-8.7	19.3	78.3	5.0	27.8	3.4	11.4
2004	111.9	98.4	-1.4	-8.0	5.8	6.8	-5.3	80.3	10.7	43.3	14.1	13.5
2004.11	111.8	97.8	-2.8	-10.4	1.4	1.6	4.3	81.8	10.2	27.5	20.8	23.8
12	111.7	97.5	-0.8	-4.9	3.1	-9.9	39.7	79.7	4.7	19.0	19.0	12.0
2005. 1	112.3	97.8	-5.6	-6.7	-7.0	0.8	14.9	81.9	14.6	21.0	45.7	42.2
2	112.8	97.1	6.2	-2.4	23.6	-18.7	-20.0	77.2	-8.0	10.2	-12.1	-12.2
3	113.3	97.2	3.6	0.1	9.6	-3.2	72.7	80.9	4.6	15.6	15.4	20.9
4	113.0	96.4	3.3	0.5	9.2	-10.0	29.1	78.8	3.7	14.0	11.4	27.4
5	113.3	96.6	2.3	-1.2	4.9	-14.4	53.9	78.0	4.1	10.9	15.3	5.7
6	113.7	96.3	1.8	-1.6	7.9	-12.2	38.0	80.1	4.1	14.5	19.6	6.6
7	114.3	96.4	1.9	1.7	8.1	25.4	7.6	80.5	7.2	23.3	20.8	-4.4
8	115.0	96.4	3.8	6.6	6.4	18.4	18.3	78.6	6.6	26.6	-0.2	7.4
9	115.5	95.9	2.1	3.8	6.0	-0.3	28.5	79.0	7.3	31.9	-11.2	4.0
10	116.1	95.9	2.7	2.4	10.2	0.9	-34.8	79.3	8.2	37.7	6.1	4.7
11	117.0	96.5	4.1	2.9	8.3	11.8	3.6	83.3	12.2	45.8	14.1	1.8

《 주요국 통계 》

[미국]

	성장률(실질) ¹⁾	산업생산지수 ²⁾	소비자물가 ¹⁾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평균) ³⁾	주가(기말) ⁴⁾
	%	%	%	%	10억달러	10억달러	10억달러	(%)	'20=100
2001	0.8	-3.6	2.8	4.8	1,007	1,365	-386	1.75	10,021
2002	1.9	-0.3	1.6	5.8	975	1,397	-474	1.25	8,341
2003	3.0	0.0	2.3	6.0	1,020	1,517	-531	1.00	10,453
2004	4.4	4.1	2.7	5.5	1,147	1,764	-617	2.25	10,783
2005. 1/4	3.8	0.5	3.1	5.2	306.5	479.5	-173.1	2.5	10,766
2005. 2/4	3.3	1.5	2.9	5.1	317.3	490.6	-173.3	3.0	10,275
2005. 3/4	3.8	-0.1	3.1	5.0	319.6	503.0	-183.4	3.5	10,568

주: 1) 전년동기대비, 2) 전분기 대비 연율, 3) 연방기금금리, 4) 다우지수

[일본]

	성장률(실질) ¹⁾	산업생산지수 ¹⁾	소비자물가 ¹⁾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평균) ²⁾	환율(기말)	외환보유고(기말)	주가(기말) ³⁾
	%	%	%	%	100억엔	100억엔	100억엔	%	¥/\$	억달러	
2001	0.2	-6.8	-0.7	5.0	4,898	4,242	1,065	1.85	131.50	4,020	10,543
2002	-0.3	-1.3	-0.9	5.4	5,211	4,223	1,414	1.65	118.74	4,697	8,579
2003	1.4	3.3	-0.3	5.2	5,455	4,436	1,577	1.70	107.31	6,735	10,677
2004	2.7	5.3	-0.1	4.7	6,117	4,922	1,862	1.55	102.45	8,445	11,489
2005. 1/4	1.3	2.6	-0.3	4.5	1,504	1,251	409	1.65	107.09	8,377	11,669
2005. 2/4	2.1	0.3	-0.1	4.5	1,433	1,160	466	1.50	110.62	8,435	11,584
2005. 3/4	1.7	0.2	-0.3	4.3	1.53	113.34	8,435	13,574

주: 1) 전년동기대비, 2) 장기프라임레이트, 3) 日經평균주가

[EMU 12개국]

	성장률(실질) ¹⁾	산업생산지수 ¹⁾	소비자물가 ²⁾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 (평균) ³⁾	환율 (평균)	대외준비 (기말)	주가 (기말) ⁴⁾
	%	%	%	%	억유로	억유로	억유로	%	\$/유로	억달러	
2001	1.7	0.4	2.3	7.9	10,617	10,139	-33	5.03	0.896	3,461	3,806
2002	0.9	-0.6	2.3	8.3	10,829	9,839	645	4.92	0.946	3,837	2,386
2003	0.7	0.3	2.1	8.7	10,584	9,888	204	4.16	1.132	3,869	2,761
2004	2.1	2.0	2.2	8.9	11,507	10,785	467	4.14	1.342	3,807	2,951
2005. 1/4	0.2	-0.8	2.0	8.8	2,813	2,751	36	3.67	1.319	3,737	3,056
2005. 2/4	0.4	0.9	2.1	8.7	3,090	2,973	-133	3.41	1.216	..	3,182
2005. 3/4	2.3	3.26	1.226	..	3,429

주: 1) 전기대비, 2) 전년동기대비, 3) 국채수익률 4) 기간평균치, 5) 다우존스 Euro Stoxx 50지수

[독일]

	성장률(실질) ¹⁾	산업생산지수 ¹⁾	소비자물가 ²⁾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 (평균) ³⁾	환율 (평균)	대외준비 (기말)	주가 (기말) ⁴⁾
	%	%	%	%	억유로	억유로	억유로	%	\$/유로	억달러	
2001	1.2	-0.4	2.0	9.4	6,383	4,052	33	4.7	0.896	820	5,160
2002	0.1	-1.2	1.4	9.8	6,513	4,052	482	4.6	0.946	891	2,893
2003	-0.1	0.1	1.0	10.5	6,645	4,052	452	3.8	1.132	968	3,965
2004	1.6	2.4	1.7	10.6	7,311	5,742	835	3.7	1.342	972	4,256
2005. 1/4	0.8	0.0	1.7	11.7	1,890	1,423	279	3.3	1.319	963	4,349
2005. 2/4	0.0	0.8	1.7	11.8	..	1,967	237	3.0	1.216	..	4,586
2005. 3/4	2.1	11.6	5,044

주: 1) 전기대비, 2) 전년동기대비, 3) 국채수익률, 4) 기간평균치, 5) DAX 지수(1987.12.30=1,000)

[영국]

	성장률(실질) ¹⁾	산업생산지수 ¹⁾	소비자물가 ²⁾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 (평균) ³⁾	환율 (평균)	대외준비 (기말)	주가 (기말) ⁴⁾
	%	%	%	%	억파운드	억파운드	억파운드	%	파운드/\$	억달러	
2001	2.2	-1.5	1.2	3.2	1,900	2,307	-221	4.91	1.4403	404	5,217
2002	2.0	-2.5	1.3	3.1	1,865	2,335	-165	4.48	1.5037	428	3,940
2003	2.5	-0.5	1.4	3.0	1,886	2,364	-168	4.77	1.9300	461	4,391
2004	3.2	0.8	1.3	2.7	1,909	2,512	-230	4.48	1.6337	497	4,814
2005. 1/4	0.3	-0.8	1.7	2.6	491	648	-73	4.60	1.8911	495	4,894
2005. 2/4	0.5	0.2	1.9	2.7	520	666	-30	4.36	1.8563	..	5,113
2005. 3/4	0.4	..	2.4	2.8	4.28	1.7853	..	5,478

주: 1) 전기대비, 2) 전년동기대비, 3) 국채수익률, 4) 기간평균치, 5) FTSE 100지수(1984.1.3=1,000)

[프랑스]

	성장률(실질) ¹⁾	산업생산지수 ¹⁾	소비자물가 ²⁾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 (평균) ³⁾	환율 (기말)	대외준비 (기말)	주가 (기말) ⁴⁾
	%	%	%	%	억유로	억유로	억유로	%	\$/유로	억달러	
2001	2.1	1.1	1.6	8.7	3,324	3,321	234	4.87	0.896	586	4,625
2002	1.3	-1.1	1.9	9.1	3,310	3,244	141	4.39	0.946	617	3,064
2003	0.9	-0.6	2.1	9.8	3,232	3,212	69	4.34	1.132	708	3,558
2004	2.1	2.0	2.1	10.0	3,400	3,484	-63	4.10	1.342	774	3,821
2005. 1/4	0.4	-0.5	1.7	10.1	866	917	-58	3.64	1.319	768	4,068
2005. 2/4	0.1	0.2	1.7	10.2	888	938	-64	3.34	1.216	..	4,229
2005. 3/4	1.9	9.9	4,600

주: 1) 전기대비, 2) 전년동기대비, 3) 국채수익률, 4) CAC 40 Index(1987. 12. 31=1,000)

[중국]

	성장률(실질) ¹⁾	산업생산지수 ¹⁾	소비자물가 ¹⁾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 (기말) ²⁾	환율 (기말)	외환보유고 (기말)	주가 (기말) ³⁾
	%	%	%	%	억달러	억달러	억달러	%	元/\$	억달러	%
2001	7.3	9.9	0.7	3.4	2,662	2,436	174	5.85	8.2766	2,122	171.53
2002	8.0	12.6	-0.8	4.0	3,256	2,953	354	5.31	8.2800	2,864	113.51
2003	9.3	16.7	1.2	4.3	4,385	4,131	459	5.31	8.2767	4,033	104.94
2004	9.5	16.3	3.9	4.3	5,936	5,608	690	5.58	8.2765	6,099	75.65
2005. 1/4	9.4	16.2	2.8	..	1,559	1,393	..	5.58	8.2765	6,591	77.22
2005. 2/4	9.5	16.5	1.7	..	1,865	1,634	..	5.58	8.2765	7,110	65.30
2005. 3/4	9.4	16.2	1.3	..	2,042	1,754	..	5.58	8.0768	7,690	67.65

주: 1) 전년동기비, 2) 1년만기 대출금리, 3) 상하이 B주 지수

[대만]

	성장률(실질) ¹⁾	공업생산증가율 ¹⁾	소비자물가 ¹⁾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 (기말) ²⁾	환율 (기말)	외환보유고 (기말)	주가 (기말) ³⁾
	%	%	%	%	억달러	억달러	억달러	%	TW\$/\$	억달러	%
2001	-2.2	-7.3	0.0	4.2	1,228	1,072	188	7.377	35.04	1,222	5,551
2002	3.9	6.4	-0.2	5.2	1,306	1,126	257	7.100	34.60	1,617	4,452
2003	3.3	7.2	-0.3	5.0	1,442	1,273	287	3.429	33.93	2,066	5,890
2004	5.8	9.8	1.6	4.4	1,740	1,679	190	3.516	31.74	2,417	6,139
2005. 1/4	2.5	-0.4	1.7	4.2	429	426	44	3.614	31.46	2,511	6,006
2005. 2/4	3.0	0.6	0.2	4.1	468	468	17	3.671	31.65	2,536	6,242
2005. 3/4	..	3.4	3.0	4.1	475	460	..	3.762	33.15	2,538	6,119

주: 1) 전년동기대비, 2) 프라임레이트, 3) 가권지수

[홍콩]

	성장률(실질) ¹⁾	제조업 생산증가율 ¹⁾	소비자물가 ¹⁾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 (평균) ²⁾	환율 (기말)	외환보유고 (기말)	주가 (기말) ³⁾
	%	%	%	%	억달러	억달러	억달러	%	HK\$/\$	억달러	
2001	0.6	-4.4	-1.6	5.1	1,899	2,011	-112	5.125	7.799	1,112	11,397
2002	2.3	-9.8	-3.0	7.3	2,003	2,080	-115	5.000	7.799	1,119	9,321
2003	3.3	-9.2	-2.6	7.9	2,237	2,322	-161	5.000	7.799	1,184	12,576
2004	8.1	2.8	-0.5	6.9	2,591	2,711	..	5.000	7.799	1,236	14,230
2005. 1/4	6.2	-0.6	0.3	6.2	614	647	..	5.250	7.799	..	13,517
2005. 2/4	6.8	-0.1	0.8	5.7	714	747	..	5.750	7.771	..	14,201
2005. 3/4	1.4	5.5	791	806	..	7.000	7.758	..	15,428

주: 1) 전년동기대비, 2) 프라임레이트, 3) 항셱지수